



전기관련 여성 CEO 인터뷰

취재 | 제도연구실 손 영 선

Q 회원님께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으로써 다소 접근하기 힘든 전기공학을 공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대학 졸업 후 육아와 가사 일만하다가 남편의 권유로 1998년도에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전기공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타과를 졸업한 저에게는 공학계열은 낯설었으나, 학창시절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기공학이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라는 생각에 도전이 두려웠으나 점점 공부를 하면서 흥미로웠고 재미있어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전기공학을 전공한 남편의 조언과 격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10년 동안을 꾸준히 새로운 것을 준비하며 도전 할 수 있었습니다.

Q 엔지니어링분야는 남자들의 영역이라 불리며, 특히 남녀 차별이 심했을 텐데 이를 극복하신 노하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학문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지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기분야도 여성참여비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여성에게 핸디캡이 아니고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공학이나 과학 등의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져 오히려 생활에 밀착된 기술의 경우 여성의 사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어울릴 것만 같은 직업이지만 경쟁력은 여성에게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또는 남자라서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직업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도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이 자기만족도나 자기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만의 가치관이 여기 엔지니어링 분야에 저를 서있게 한 것 같습니다.

Q 기술분야 최고자격인 기술사를 취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A 기술사가 기술분야 최고 License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3·4학년이었고,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라 요즘 흔히 말하는 working-mom에 공부까지 더해지게 된 셈인데, 주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밤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는 <아웃라이어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1만 시간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며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과 열정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꾸준히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렇듯, 꼭 해내고 말겠다는 자기최면 같은 자신감과 주의 사람들의 격려가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Q 여러 전기분야중 전기설계·감리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원래 전기공사업을 먼저 운영하고 있었고 설계·감리분야는 기술사를 취득 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감리분야는 공공의 전기안전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계라는 기초에서부터 감리라는 완성품의 품



김경미 회원(No. 126750)
대한엔지니어링 대표 / 기술사

질확보를 위한 감독은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정말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기설계·감리가 사회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라서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 알아 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한 업역 활동으로 건설부문과 종속적인 입장인 아닌 시너지가 있는 사업분야로서 전기설계·감리업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전기관련업종 여성 CEO로써 어려운 점이 없는지 자신만의 특별한 리더십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A 꼭 여성이라기보다는 모든 CEO분들이 그렇듯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용역 수주와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기설계·감리분야는 참여인력의 역량이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리더십이라고 소개하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경영방침을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남성 구분은 전통적인 사고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선 구성원 각자의 특질을 파악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들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여성 CEO멘토로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대사회는 uni-sex시대로 여성은 남성만의 분야에 남성은 여성만의 분야에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살릴 새로운 도전분야를 찾고, 도전함으로써 느끼는 성취감 및 만족감 또한 대단히 큰 만큼 도전하시고 꼭 이루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선배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 분야의 후배들에게도 여성이라기보다 자기만의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연도별 여성회원 등록 현황 〉

